



# 2002년도 전자정보산업 전망

## I. 전자산업의 최근동향과 2002년 전망 (이익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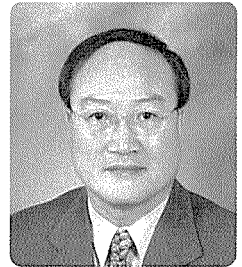
## II. 2002년 세계 전자시장 전망 (이덕희)

### III. 2002년 부문별 전망

1. 가전산업전망 (권영수)
2. 컴퓨터산업전망(박일환)
3. 통신산업전망(이인석)
4. 전자부품산업전망(이상익)
5. 반도체산업전망(김일웅)

본회는 최근의 전자산업 동향분석과 내년도 전자산업 경기전망을 토대로 우리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정부의 전자산업 육성정책을 지원코자, 지난 12월 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자업계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전자산업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고는 세미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편집자)

# I. 전자산업의 최근동향과 2002년 전망



이희준 이사 (본회)

금년 국내 전자산업은 세계 IT경기 침체 및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 PC, 음극선관, PCB 등의 수출이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10월 현재 22.9% 감소한 428억불을 기록하고 있고 내수 판매 역시 컴퓨터 관련 제품 등의 부진으로 9월 현재 10.2%의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침체국면에 있는 세계 경제는 유가하락,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체질 개선 효과의 가시화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미국을 중심으로 내년 2/4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경기도 내년 하반기부터 PC, 반도체 등 IT제품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진흥회에서 조사한 전자업계의 내년 경기에 대한 저망을 보면 수출이 15%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는 업체가 62%로 높게 나타났고 내수판매는 5~15% 증가를 예상한 업체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내수보다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문별로는 산업용 제품의 수출이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업체가 77%에 이르는 반면, 가정용기기, 전자부품은 수출과 내수 모두 산업용 제품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자 업계는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전자산업의 최근 동향 총괄 >

(수출/수입:백만불, 생산/시판:10억원)

구분	2000	증감율(%)	2000.10월 당월	증감율(%)	2001.10월 누계	증감율(%)
수출	66,787	28.7	4,469	-27.8	42,782	-22.9
시판	16,827	12.4	1,418	-6.2	11,493	-10.2
생산	97,501	18.2	7,369	-18.1	65,347	-10.8
수입	43,961	35.4	3,056	-23.4	29,547	-19.2

주 : 2001년 생산·시판은 9월 기준

< 2002년도 수급전망 >

(수출/수입:백만불, 생산/시판:10억원)

구분	2000	증감율(%)	2001(추정)	증감율(%)	2002(전망)	증감율(%)
수출	66,787	28.7	52,519	-21.4	59,224	12.8
시판	16,827	12.4	16,044	-4.7	17,342	8.1
생산	97,501	18.2	85,796	-12.0	97,438	13.6
수입	43,961	35.4	34,578	-21.3	40,975	18.5

내년 전자수출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중국 시장의 확대, 신기술 디지털제품의 출시, 내수부진을 기업들의 의지로 금년보다 12.8% 증가한 592억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판은 월드컵 특수 및 특소세 인하 등에 따라 DTV, DVD, PC 등 디지털 제품이 호조를 보이며 8% 내외의 증가세가 전망되며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증가에 힘입어 13.6% 성장한 97조 4,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보면 가정용기기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 중국등 동남아 제품관의 경쟁심화 등에 따라 3% 내외의 소폭 증가한 약 74억불이 예상되는 반면, 시판은 디지털방송, 월드컵 개최, 특소세 인하 등에 힘입어 TV, 냉장고 등 대형 고가제품과

DVD 등 디지털 제품이 호조를 보이며 9.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기기 수출은 Notebook PC, LCD모니터 수출증가와 이동전화기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22%의 성장세가 전망되며 내수 판매에서는LCD 모니터로의 대체 가속화, 공공부문의 PC 수요 및 Notebook PC 수요 활성화, cdma2000 1X EV-DO 서비스 개시 및 컬러-폰 대중화에 따라 금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동전화기의 성장세 반전이 기대됨에 따라 7% 내외의 소폭 성장이 예상된다.

전자부품은 가전,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 셋트 제품의 호전에 따라 PCB, 콘덴서 등 관련 부품

< 가정용기기 >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품목별	2001(추정)				2002(전망)			
	수출	증감율(%)	시판	증감율(%)	수출	증감율(%)	시판	증감율(%)
CTV	802	-16.5	873	17.5	870	8.5	960	10.0
VCR	923	-2.7	226	-10.6	944	2.3	234	3.5
(DVD)	(380)	(20.6)	(35)	(285.0)	(500)	(31.5)	(70)	(100.0)
컴포넌트	320	-6.2	145	-24.3	311	-2.8	130	-10.3
녹음기	334	9.2	34	16.8	376	12.6	40	17.7
라디오카세트	491	-12.3	346	24.7	461	-6.1	427	23.4
냉장고	802	4.6	1,147	38.5	863	7.6	1,279	11.5
세탁기	372	5.4	485	9.8	403	8.3	517	6.5
전자레인지	669	-14.3	95	13.2	619	-7.5	103	8.4
에어컨	654	-9.2	396	7.6	688	5.2	415	4.7

의 수요 증가로 수출과 시판이 각각 8%, 11%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반도체 수출은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2~3%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업체의 세계

DRAM시장 점유율이(2000년 기준 38%)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5% 내외의 소폭 증가세를 보이며 162억불 규모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용기기 >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품목별	2001(추정)				2002(전망)			
	수출	증감율(%)	시판	증감율(%)	수출	증감율(%)	시판	증감율(%)
PC (Notebook)	1,954 (942)	-30.4 (47.0)	1,959 (395)	-17.5 (-4.8)	2,453 (1,395)	25.5 (48.1)	2,139 (437)	9.2 (10.6)
모니터	3,441	-5.3	282	-41.3	3,875	12.6	328	16.3
HDD	536	10.2	354	-4.3	629	17.4	385	8.8
프린터	379	-8.2	130	-45.6	388	2.4	141	8.5
이동전화기	7,200	30.0	4,050	-9.0	9,216	28.0	4,252	5.0
유무선전화기	121	-25.6	160	-29.5	145	20.0	176	10.0
위성방송수신기	486	6.3	2	-	586	20.6	12	500.0

< 전자부품 >

(수출:백만불, 생산·시판: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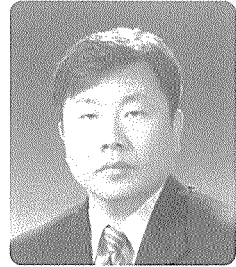
품목별	2001(추정)				2002(전망)			
	수출	증감율(%)	시판	증감율(%)	수출	증감율(%)	시판	증감율(%)
음극선관	2,081	-19.1	527	-2.6	2,133	2.5	542	2.8
자기테이프	550	-0.5	98	-44.6	590	7.3	91	-7.2
PCB	746	-16.6	274	-28.4	876	17.4	316	15.3
콘덴서	470	-24.1	282	-21.8	564	20.0	346	22.6
소형모터	270	-17.7	118	2.6	290	7.4	149	26.2
커넥터	150	-11.2	194	-10.2	160	6.7	215	10.8
스위치	110	-7.6	105	27.9	120	9.1	121	15.2

< 반도체 >

(수출:백만불, 생산·시판:10억원)

구분	2000	증감율(%)	2001(추정)	증감율(%)	2002(전망)	증감율(%)
수출	26,015	38.0	15,407	-40.8	16,207	5.2
개별소자	1,108	29.0	775	-30.1	798	3.0
메모리	15,436	67.7	7,718	-50.0	8,288	7.4
DRAM	10,444	31.3	4,804	-54.0	4,500	-6.3
기타	9,471	7.8	6,914	-27.0	7,121	3.0
시판	822	7.7	828	0.7	853	3.0
생산	31,652	21.4	21,958	-30.6	23,050	5.0

## II. 2002년 세계 전자시장 전망



이덕희 박사  
(산업연구원 디지털경제실)

### 개 관

2000년 하반기 미국 IT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강 국면에 접어든 세계 전자산업은 올해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큰 폭의 침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002년에는 IT산업의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주기는 지속될 것이나 반면, 중국·대만의 WTO 가입, 뉴라운드의 출범, 테러전쟁 종식 기대에 따른 반등 등으로 적어도 하반기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세계 전자시장은 금년(2001년) -12.7%(1조 458억 달러)의 성장과 내년(2002년) 5.1%(1조 987억 달러)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Dataquest preliminary).

### 품목별 전망

컴퓨터는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침체 지속, 데스크탑 컴퓨터의 수요 정체 등에도 불구하고 노트

북, PDA 등 포터블 및 이동통신기술 접목 컴퓨터 수요 증가,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수요 발생, 윈도우 XP 출시, CPU 가격 인하 등으로 2002년 6.7%(3,199억 달러) 성장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01년은 -10.0%(2,998억 달러))

통신기기는 선진국의 시장 포화 상태에 따라 신규수요 정체 현상을 보이는 데다 다수 국가의 3G 도입 연기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어 2001년 -30.0%(2,766억 달러), 2002년 0.5% (2,779억 달러)의 성장이 전망된다. 단, 중국 등에서의 높은 신규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가전은 테러전쟁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다소 회복되는 동시에 디지털방송 본격화에 따라 아날로그제품에서 디지털제품으로의 교체가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제품의 가격도 하락됨으로써 세계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금년 4.5%(2,112억 달러), 내년 7.8%(2,276억 달러)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공급과잉, 가격하락이라는 침체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 점차 가격 회복 및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피니온 등 4개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갖추어지고, S램 및 플래쉬램 등 비 D램 수요 증가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년 -34.8%(1,477억 달러), 내년 2.2%(1,510억 달러)의 세계 시장의 성장이 전망된다.

전자부품은 디지털가전, TFT-LCD, PDP 등의 본격 수요 증대, 적층세라믹콘덴서(MMCC), 고주파전력증폭기(PA모듈), PCB(빌드업 기판) 등 이동통신부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금년 -9.2%(3,366억 달러)를 거쳐 내년 4.1%(3,504억 달러)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전망**

미국은 테러전쟁으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당분간 침체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내년 하반기 이후 조심스런 회복이 기대되어 내년 전자산업 시장규모는 -1~1%의 침체 국면이 예상된다. 단 전쟁 당사국으로서 상황전개에 따라 2~4%의 V자형 급반등도 예상된다.

일본은 장기불황의 높으로부터 서서히 탈출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 특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여 2~4%의 시장규모 성장이 예상된다.

유럽도 경기 회복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2~4%의 시장규모 성장이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등 정보화 진전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중국, 대만의 WTO 가입으로 세계 교역량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인하로 인한 대 중국 수출입 증대 및 외국인투자 급증으로 전자산업 시장이 가장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5% 이상의 높은 시장규모 성장이 예상된다.

< 2002년 세계 전자산업의 품목별 시장전망 >

구	분	2000	2001	2002
전자산업	시장규모(\$M)	1,198,682	1,045,896	1,098,717
	증가율(%)	15.7	-12.7	5.1
컴퓨터	시장규모(\$M)	333,207	299,893	319,913
	증가율(%)	15.7	-10.0	6.7
통신기기	시장규모(\$M)	395,171	276,634	277,900
	증가율(%)	34.1	-30.0	0.5
가전	시장규모(\$M)	202,165	211,292	227,693
	증가율(%)	8.0	4.5	7.8
반도체	시장규모(\$M)	226,492	147,753	151,059
	증가율(%)	32.7	-34.8	2.2
전자부품	시장규모(\$M)	370,735	336,627	350,429
	증가율(%)	14.2	-9.2	4.1

자료 : Dataquest preliminary

### III. 2002년 부문별 전망

#### 1. 가전산업전망

200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금리인하와 재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속적인 금리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시행과 IT부문에서의 공급과잉 조정국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2년 2/4분기 이후에나 소폭의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는 실물경기 침체 및 연이은 경기부양 정책의 실패로 2002년에도 불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는 원가 경쟁력 및 풍부한 내수시장의 영향으로 2002년에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는 정치 경제적 대미 의존도를 고려하여 불대 2002년 2/4분기 이후 경기 회복의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

기타국의 경우에는 아프간 전쟁의 양상, 뉴라

운드의 출범, 중국의 WTO가입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2002년 한국경제는 2/4분기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이 기대되기는 하나, 연간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3% 미만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경기 전망을 보면 현 경기 침체는 수출 부진이 주요인이며, 경기회복은 '02년 2/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닉스, 현대투신 등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면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기회요인으로 하이닉스, 현

대투신 등의 불확실성의 감소 및 두번의선거,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의 스포츠 행사가 2/4분기 이후 경제회복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협요인으로는 실질적인 고실업,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부실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내수 감소 및 금융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영수 상무  
(LG전자 재경팀장)

세계 가전시장 전망을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Digital 가전제품의 성장이 기대되며, 중국의 가전산업 신장에 따라 주요 수출지역에서 한국산 제

< 가전시장의 제품별 세계 수요전망 >

(단위:백만대)

	2000	2001(전망)	2002(추정)	전년대비
TV	131.5	136.3	141.7	4.0%
- Analog	129.0	131.4	133.4	1.5%
- Digital*1	2.5	4.9	8.2	67.3%
VCR	52.0	47.0	40.0	△14.9%
DVDP	12.9	25.0	40.0	60.0%
AUDIO	248.0	250.0	256.0	2.4%
- Analog*2	232.0	224.0	225.0	0.4%
- Digital*3	16.0	26.0	31.0	19.2%
냉장고	74.7	78.0	79.9	2.4%
세탁기	54.5	55.9	57.4	2.7%
전자레인지	36.0	38.0	39.7	4.5%
에어컨	39.7	41.8	44.3	6.0%
청소기	58.5	59.7	61.4	2.8%

\*1. 광의의 DTV기준(SD급 이상, LCD포함)

\*2. 카세트플레이어, 워크맨 등

\*3. MP3, ACDR, DVD Receiver 등

※ 자료 : 내부 분석 자료

< 가전시장의 제품별 국내 수요전망 >

(단위:천대)

	2000	2001(전망)	2002(추정)	전년대비
TV*1	1,942	2,200	2,300	5%
VCR	922	882	805	△9%
DVDP	60	165	350	112%
AUDIO*2	2,753	2,688	2,580	△4%
냉장고*3	2,405	2,608	2,630	1%
세탁기	1,205	1,266	1,270	0%
전자레인지	760	770	770	0%
에어컨	1,086	1,300	1,105	△15%
청소기	1,209	1,225	1,230	0%

\*1. PTV, PDP 포함

\*2. CST, HiFi 포함

\*3. 김치냉장고 포함

※ 자료 : 내부 분석 자료

품의 입지가 도전 받을 전망이다.

또한, 2002년 한국 가전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8.7%, 생산은 전년대비 7.5% 증가하여 2001년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별 수출전망을 살펴보면 TV는 중국업체의 세계 진출, 판가 하락 등으로 Conventional제품의 수출 감소와 선진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제품 ( Flat, New Display Product)의 수요가 확대 될 것이다. VCR은 DVDP시장 확대와 중국 업체 진출 및 저가 공세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DVDP는 신제품 개발 및 성능 향상으로 급성장할 것이다. 냉장고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 공세 및 중남미 Local 업체 들의 견제 심화와 OEM거래선 유지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소폭 성장이 예상된다.

에어컨의 경우는 2001년에는 북미, 유럽지역 저온 현상(Cool Summer) 및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하반기 세계경기 회복과 중국시장 확대로의 안정적인 신장이 예상된다.

세탁기는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와 미, 일 업체의 신기술 적용 제품 출시로 경쟁이 치열하며 Drum 세탁기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전자레인지도 중국업체와의 가격 경쟁 심화로 Low-end 제품은 고전이 예상되고 대형 거래선 개척 및 제품 고급화를 통한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2002년 한국 가전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Digital 방송과 월드컴 특수 등으로 Digital 관련 제품의 성장이 예상된다. 2002년 가정 총수요는 전년대비 5.5% 신장한 6조9천억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품별로 보면 TV는 월드컴 특수에 따른 D-TV 대체수요 증가로 29"이상 대형기종의 선호도가 지속될 것이다. VCR/DVDP의 경우 VCR의 수요는 감소하나, 대체 제품인 DVDP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냉장고는 Side by Side 방식 냉장고의 대체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김치냉장고의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세탁기는 총수요 정체 상태로

신장세가 둔화될것으로 예상되나 드럼세탁기 대체 수요는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에어컨은 올해 기상요인과 경쟁과열로 인한 특수수요를 감안하면 내년도는 역신장이 예상된다.

## 2. 컴퓨터산업전망

2001년 PC시장은 전년대비 24% 하락한 255만대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PC산업 출범 이래 두번째 역성장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내 IT 산업의 불황 및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의 악화, PC의 성숙기 산업 진입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PC의 최대 성수기라 할 수 있는 4분기를 앞두고 벌어진 미국 테러 사태와 그에 따른 아프칸 전쟁도 대기수요를 야기시



박일환 상무  
(삼성컴퓨터)

키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내 경제학자들이 보는 2002년 국내 경제는 2001년의 2%대를 상회하는 3%대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C시장도 전년의 역성장을 넘어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2002년 PC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는 인터넷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PC의 저가화 및 1인 1PC 시대의 도래, 대체 수요의 활성화와 노트북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요소로는 PC

### < 2001년 PC수요전망 >

(단위:대, %)

구 분	2001년		2002년	
	수량	비중	수량	비중
DESKTOP	가정용 (성장율)	1,238,000 -	48.5% 7.4%	1,330,000 47.5%
	기업용 (성장율)	421,000 -	16.5% 9.3%	460,000 16.4%
	공공용 (성장율)	526,000 -	20.6% 6.5%	560,000 20.0%
NOTEBOOK (성장율)	365,000 -	14.3% 23.3%	450,000 16.1%	
PC TOTAL (성장율)	2,550,000 -	100.0% 9.8%	2,800,000 100.0%	

보급율의 증가에 따른 신규수요의 감소 및 Upgrade시장 및 Post PC 시장의 확대 등이 있으나 전반적인 2002년의 PC시장은 수요 활성화에 따라 전년대비 약 10%가 성장한 2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PC시장의 화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대체수요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내 PC 보급율이 75%넘어서는 상황이고 보면 PC산업의 주요업체들은 이 대체수요를 둘러싸고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체시장의 수요자들은 사용 익숙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타겟마케팅이 업체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두번째는 신유통의 활성화이다. 이미 전문 유통업체와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2년에는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 신유통의 등장에는 필연적인 저가 경쟁을 유발하므로 업체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본을 동반한 대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세번째는 CRM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대체수요 위주의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존 고객을 붙들어 놓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CRM이다. 이는 기존의 대기업의 주유통경로인 전속대리점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체별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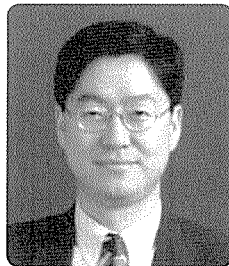
### 3. 통신산업전망

계속된 성장을 거듭하여온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올해 들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교체주기가 증가하고 유럽 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축소로 인해 미국 단말기 시장의 단기적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9%감소한 3억 8천 6백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의 경우도 3G 상업화 지연과 서비스 인프라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동통신시장의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

해 해외 유수의 업체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에릭슨은 단말기의 직접생산을 포기하고 전량 아웃소싱 조달을 결정하였으며, 모토롤라는 미국 일리노이주 하바드 공장을 폐쇄하였고 노키아는 텍사스 노키아 TNC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필립스는 단말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멘스의 경우 4분의 1이상의 종업원을 해고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국내시장의 경우에도 이동전화 보급률이 약 62%에 달함에 따라 신규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의 지속에 따라 단말기 산업의 경우 2.5G(1X)단말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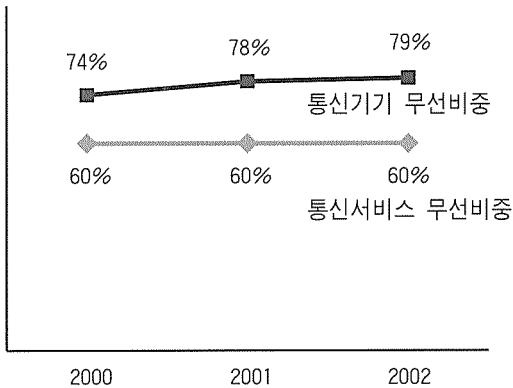
이인석 상무  
(LG전자)

< 국내 정보통신 산업 규모 >

(단위 : 조원, %)

연도	2000		2001		2002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정보통신 서비스	28.7	31.9	30.2	5.4	36.4	20.4
정보통신 기기	105.2	21.2	103.1	-1.9	114.1	10.6
S/W 기타	7.9	21.4	9.7	23.2	11.2	19.8

< 국내 정보통신 무선비중 >



자료 : 전자통신동향분석 2000. 10월 제구성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백만대 규모의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템은 2.5G망 확대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각 사업자의 동기식 3G(EVDO)투자로 인해 향후 증가세가 예상된다.

올해 중 전체 가입자당 매출액 증가율이 8%수준 인데 반해 무선인터넷 가입자당 매출액 증가율이 41%로서 무선인터넷 시장의 급신장을 이룬 한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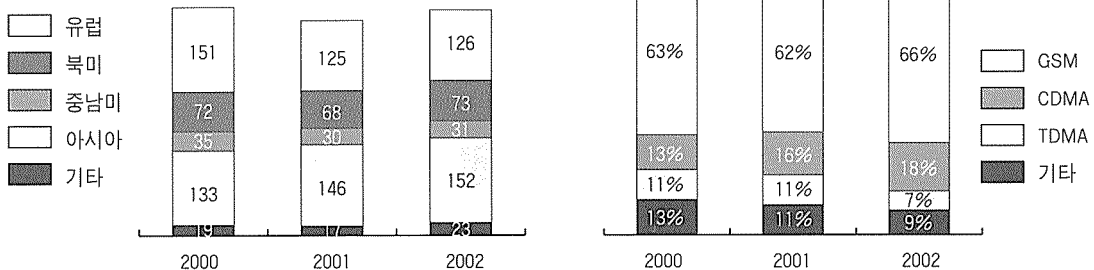
2002년 해외 단말시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3G 서비스의 도입 지연이 예상되기는 하나 2.5G(GPRS, 1X) 단말기 교체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5% 증가한 4억 5백만대로 2000년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시장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시장의 경우 본격적인 3G 서비스 확대가 2003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므로 2002년 시스템 투자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미화 4백 60억불로 예상되면 중국 CDMA와 인도 WLL과 같은 제한된 시장을 제외하고는 한국업체들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2개의 비동기 사업과 1개의 동기식 사업자가 IMT-2000 서비스 추진을 준비중에 있으나 제반 여건상 계획보다 다소 늦추어 질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 11월 강화된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강화가 계속될 경우 2002년 단말기 수요는 1,200만대로 전년대비 8% 정도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Color 단말기 등 고가 단말기 시장의 확대에 의해 소규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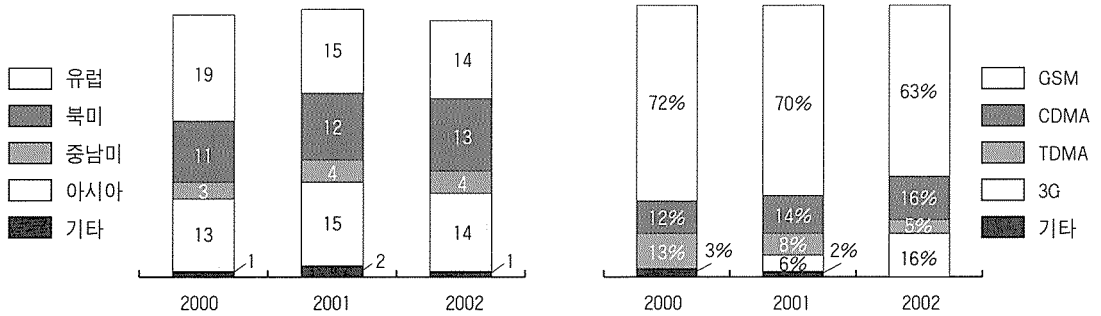
(단위:백만대)



<Source : LGE 11월 자체추정>



<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 >



<Source : Merrill Lynch 9월>

지금까지 성장일변도로 달려온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선진국 시장의 포화와 새로운 서비스 도입 지연 등으로 인해 2001년 한해는 조정 양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중위권 제조업체들의 구조 조정, 관련 부품시장의 공급과잉 등 전형적인 시장 조정기의 상황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도 등 새로운 성장시장이 출현하고 있는 점과 전세계적으로 약 6억 5천만명에 달하는 기존 이용자의 교체수요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은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2002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세계 경기회복, 새로운 서비스(2.5G, 3G)의 본격화 등으로 상당한 수요증가의 잠재력이 있고, 중국·인도 등 신규 성장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는 점을 잘 살린다면 큰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4. 전자부품산업 전망

세계 전자부품시장은 PC, 휴대폰 등 주요 셋트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부품재고도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분기 이후부터 수요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부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 경기요인을 보면 내년에는 2.5G 휴대폰 및 디

지털 AV기기 시장의 확대와 PC, 휴대폰 수요 회복으로 인한 부품 및 완제품의 재고 감소 등의 기회요인과 함께 칩부품, 통신부품의 공급과잉 지속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과 대만업체와의 경쟁심화, D-PC부품의 성장 부진 등의 위협요인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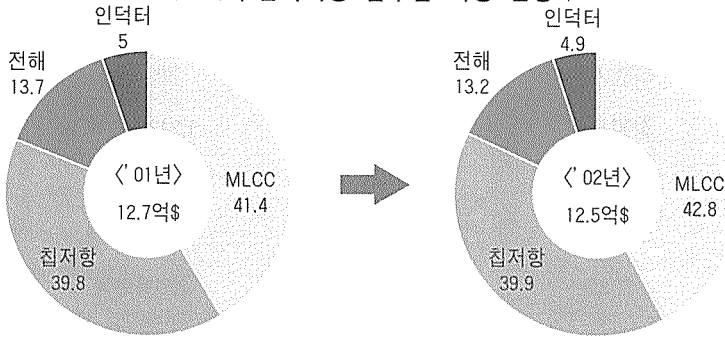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휴대폰, 디지털 AV기기의 시장확대로 MLB, 광픽업, TFT-LCD 등의 호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FDD, ADSL 모뎀 등은 PC 및 네트워크산업의 회복지연



이상익 상무 (삼성전기)

< PC/주변기기용 칩부품 시장 전망 >



으로 부진이 예상된다. 전반적인 시장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경쟁심화로 판가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PC탑재용 칩부품의 경우, 수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범용부품의 경우 다층기판은 PC, 반도체용에 비해 휴대폰, Digital AV용이 호조를 보일것이고, 정밀모터는 휴대폰, Digital AV용 중심으로 저가모터가 주도를 이룰 것이다.

MLCC는 고용량품 중심으로 소형화인 0603 타입의 채용이 확대될 것이며 인덕터는 회로의 IC화 진전으로 세트 1대당 사용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칩저항은 소형화와 정밀품으로 Shift 가속화되며, 전해콘덴서는 고부가화로 전환될 추세이다.

통신부품의 경우 SAW필터와 유전체 필터는 단품 중심에서 점차 FEM등 복합화로 진전될 것이며 VCO는 수요 정체, TCXO는 소폭 성장할 것이다.

정보가전부품의 경우 Tuner는 Digital AV용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DY FBT는 대만업체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저가 대평TV용 DY, 역권선방식 FBT등 저가모델이 출시될 것이

다. 광픽업은 DVDP용 광픽업이 2002년에 40%의 성장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Display부품의 경우 CRT는 LCD의 확대로 저가화가 가속될 것이며 TFT-LCD는 2002년 예도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PDP는 판가하락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유기EL은 개발중심에서 양상체제로 진행될 것이다.

지역별로는 미주시장의 경우 통신부품은 현지생산이 축소될 추세이며 3G로의 전환은 2003년부터 예상된다. 또한, PC부품은 PC 성장 둔화로 가격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AV부품은 D-TV용부품의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칩부품은 시장 둔화가 지속될 것이고 Flip Chip-BGA는 확대가 예상된다.

구주시장의 경우 통신부품은 시장침체로 위탁생산, J/V형태로 전환될 것이며, PC는 포화상태이나 교체수요가 예상된다. AV부품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본격화로 쌍방향서비스 실용화로 STB부품이 증가할 것이다.

중화권시장의 경우 CDMA가 활성화 되면서 부품시장이 확대되고 중국 현지생산도 확대될 전

< 주요 전자부품의 세계시장 전망 >

품 목	2001	2002	증가율(%)	
범용부품	다층기판	268억불	305억불	14.0
	정밀모터	1,079백만개	1,243백만개	15.2
	MLCC	5,185억개	5,548억개	7.0
통신부품	SAW필터	1,376백만개	1,520백만개	10.5
	TCXO	254백만개	279백만개	9.8
정보가전부품	튜너	253백만개	266백만개	5.1
	광픽업	410백만개	495백만개	21.0
디스플레이부품	CRT	228백만대	230백만대	0.9
	TFT-LCD	42백만개	55백만개	30.5
	PDP	0.6백만대	1.4백만대	133.0

망이다. 다만 D-PC용 부품은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DVDP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또 CTV, CLP, M/B, Audio 등 주력제품의 회복 지연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동남아 시장의 경우 통신부품은 현지시장에서 성장중이나,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 EMS업체에 위탁의 증가 추세이다. PC부품은 IT산업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나 저가의 중국제품이 강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칩부품은 중국계 업체 중심으로 저가 전략으로 추진중이다.

전자부품산업에도 '세계의 공장' 으로서의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CTV, VCR, DVDP, 휴대폰 등 주요 전자기기의 세계생산의 25%를 담당하는 생산 기지가 되어 있다. 내년 세계경제성장이 2%내외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8%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 업계의 대중국 전략도 종래의 저인건비 위주의 진출에서 중국시장을 겨냥한 현지생산체제로 전환하고 부품업체간 공동진출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5. 반도체산업 전망

DRAM의 가격은 매년 평균 32% 정도 하락하고 있으며, 수급외에도 덤핑, 감산, 지진 등 외부

환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대구경 웨이퍼 사용, 공장자동화 등 투자규모의 거대화로 DRAM Fab 건설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00년 이래 신축된 DRAM Fab은 불과 3개로서 향후 공급 성장율의 둔화로 시장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DRAM의 최대 수요처인 PC의 2002년 MB/Sys는 2001년 대비 약 38% 증가한 243MB로 예상된다. 256MD 비트크로스 발생은 2002년 2분기로 예상되고 256MD 증산에 따른 주력제품 조기전환으로 256MB기본 메모리 탑재 PC 출하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 외에 윈도우 XP 보급 확대도 PC의 MB/Sys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DRAM 시장은 올해에 3.8%의 공급초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전체적으로는 0.7%의 공급초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3분기 이후에는 윈도 XP 확산, 대기업의 PC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수급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금



김일웅 상무  
(삼성전자)

액기준으로 2002년 세계 DRAM 시장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20억불 이하정도가 될 것이다.

DRAM의 장기전망을 보면 디지털TV, Handheld PC, 3G Mobile Phone 등이 새로운 유망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다. 이들 시장은 현재는 DRAM bit 성장에 차지하는 부분이 작으나 연간 60-80%(DRAM bit 성장율) 정도의 고속 성장을 하는 시장

으로서 향후 1-2년 내에 DRAM 시장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인치 Fab 투자여력이 없는 업체는 장기적으로 도태 가능성이 높으며, DRAM 시장은 생산원가/제품경쟁력이 있는 회사, 즉 상위 1/2위 업체에게만 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 세계반도체시장 규모 >

(단위 : 억불, %)

구 분	2000		2001		2002	
	WSTS	DQ	WSTS	DQ	WSTS	DQ
전 체	2,044(36.8)	2,265(32.7)	1,388(-32.1)	1,473(-35.0)	1,424(2.6)	1,517(3.0)
D 램	289(39.6)	315(36.3)	113(-60.9)	105(-67.0)	117(3.9)	85(-19.0)

자료 : WSTS 2001.10 / DQ 2001.11